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환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환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58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월 17일 금요일	Issue No.	1758
		Date	Aug. 29, 1969: Fri.

한국에 미군주류는 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언명

(서울 8월 28일 밤, 공동) 박정희 한국대통령은 28일 서울의 대통령 관저에서 "북조선, 중공, 소련 공산주의의 협위가 북아세아로부터 제거될때까지 미국은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전주의 니슨 박회담이래 첫번의 회견에서, 박대통령은 또 "오끼나와의 미군은 일본방위를 위한것만이 아니고, 극부 비울빈을 포함하는 모든 자유아세아를 지키기 위해서 주류하고있는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한일 각료회의서 최규하 장관이 아세아의 안전에 미국의 힘이 필요라고 강조

(동경 8월 26일 밤, 공동) 아이지 외상은 26일 오후 동경 시바시모가네의 영빈관에서 최규하외무장관과의 개별 회담을 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최외무장관은 (1) 전의 니슨 박회담의 결과, 한국의 안전은 미.한 상호방위조약, 국련의 사상방에서 금후에도 지킬것을 확인하였다. (2) 아세아.태평양권역의 안전에 대해서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고 등을 말하는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특히 국련 활동을 통하여 한국에 협력하여 주기를 바란다" 라고 요망하였다. 이에 대해서 아이지 외상은 "일본으로서의 일.미 안보체제가 일본을 포함하는 아세아의 안전에 공헌하고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금후에도 경제협력의 면에서 아세아의 안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하였다.

일본.한국 쌍방의 6각도가 출석

(동경 8월 26일 밤, 공동) 제3회한일정기각료회의는 26일 오전 동경 시바시모가네의 영빈관에서 일본측으로 아이지 외상, 우구다재무상, 오이라촌산상동 6각도, 한국측으로부터 김락열부수상겸 경제기획원장관, 최규하외무장관, 황종윤재무장관동 6각도가 출석하여 3일간에 걸치는 회의의 막을 열었다. 회의는 우선 아이지 외상이 개회선언을 하고, 이어 동외상이 일본측을 대표해서 "한일 양국은 문자 그대로 일의대수의 관계에 있으며, 양국의 우호협력은 아세아의 평화와 번영에 큰 공헌을 한다고 확신한다" 라고 인사하였다. 이를 받아 김부수상은 "한국의 방위력과 경제력발전은 일본을 포함하는 아세아 평화와 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과 번영에 공헌하는바가 크다. 한일간의 무역면에서 서서히 불균형상태는 아직 계속하고있으며, 한일간의 무역이 확대균형화되기를 희망하고있다" 라고 인사하였다.

(제 1 면)



경제협력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

이후 전오지나 일단 유제, 오후 3시까지 재개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일 양국간의 경제협력문제 전반에대해서 논의하였는데, 특히 한국측이 설립을 계획하고있는 종합제철소문제가 중심의제가 되었다. 김경제기획위원장은 한국측이 생각하고있는 종합제철소의 규모는 포강베이스로 일년산이 백만톤의것이 되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으로서는 외자 1억 원과 자기자금 백79억 원 (약6천9백61만 불)을 예정하고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대해서 아이지외상은 "바대통령으로부터도 직접협력의 요구를받고있는데, 설명과 자료로 자세한점을 알 필요가있다" 라고 전제하고 심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 때문에 28일의 최종일은, 양국간의 합의문서도 더 진전된 도의가 있을모양인데, 한국측이 강경한 협력요청을 하는경우, 일본의 태도결정을위해 관계각료회의를 열 필요가 있을것으로보인다.

제철소 원조에서 합의의 의의

(동경 8월27일밤, 공동) 26일부터 동경 시바시소가네의 영빈관에서 열리고있는 제3회 한일정기 각료회의는, 회기를 하루 연기하고 28일 오전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기 위한 최후의 전체회의를 열고 막을 닫았다. 이번의 회의에서 최대의 초점이던 한국의 종합제철소건설문제는, 일본 한국양국의 관계 8각료회의한 1일재오후와 2일재 낮의 두번의 특별회의에서 4상방의 사실상의 합의물보았는데, 이 제철소문제가 결정된것으로 일은 손조모이되어, 2일재의 27일오후부터는 한일 조세협정, 해운협정, 민간상업채권, 한국 김의 수입방식개선등, 한일 양국간의 제안사항의 공동성명에서의 취급등을사고, 사무당국간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한국의 제철소건설 문제는, 한국측이 비교적 한력적인 태도를보였기때문에, 27일의 관계 8각료회의에서 공동성명에서의 취급에대해서 최종적 의견이 일치되었다. 그의 내용은 "일본측은 한국의 요구에대해서 깊은 이해를 보이고, 협력을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다" 라는것으로, 자금제외등 자세한 내용에는 언급하지안고, 전체로서 일본 측의 협력의 자세를 보이기로하였다. 한국측으로서도 제철소건설문제는 세계은행과의 관계도있서 세력에대한 합의에까지 는 고집치안고, 일본측의 "전제 자세"를결정하는것으로서 양보한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의 회의는 한국의 국내정치정세가 극히 나쁜중에서 열렸는데, 회담에서는, 최장관은 "한국로서는 아세아의 긴장과 불안정에대해서 걱정하고있다" 라고 토명한외에 "아세아 태평양전역의 안전에대해서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등, 한국측의 국제, 정치정세에대한 전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한국측의 의향이나 국내정세가 이번의 회의에 큰 영향을 주지안었다 따라서 회의전체를통해서 종합제철소문제를 중심으로하는 경제문제를 주요하여 여러가지의 회의 와 비교해서 비교적으로 손조모이 "달났다"고 말할수있다.

제주도에 핵기지 설치도 환영

(동경 8월28일밤, 공동) 아이지외상, 김한국부수상등 한일 각료회의의 출석각료는, 28일전 오지나서 동경 시바시소가네의 영빈관에서 내외기자단과 합동회견하였다. 이 중에서 최한국외부장관은 오기나외문제에관해서 "한국정부는 오기나외의 미군기지가 가지고있는 가치가 손상되지안도록 또 이어 필요한경우에는 심숙하고 유효한 사용이 확보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스며, 이점 미.일양국정부에 공식, 비공식 계통을통해서 표명하고있다" 라고 말하고, 또 "우리 나라와 아세아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주도에 핵기지를 설정하여도조라고 생각하고있다" 라고 말 하였다.



어디까지나 한국을 지지

닉슨대통령 박 회담에서 강조

(상항 8월21일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21일, 미국방문중의 박정희한국대통령을 상항의 푸레시 디오에 마지하여 회담을가였다. 닉슨대통령은 동시에 발표된 성명중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동시에 한.미의 우호관계를 칭찬하고, "한국전쟁에서 힘을 합하여 평화를 획득한이래, 우리는 또 힘을합하여 평화를 유지하여왔다. 북으로부터의 위협은 우리의 결의를 강하게하였을다름이다" 라고 말하였다. 바대통령은 한국에있서서의 미군주류의 보증, 닉슨대통령의 신아세아정책등의 확인의 목적으로 미국방문한것인데, 닉슨 성명은 그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안었다.

파리 회담 여전히 무진전

(파리 8월 28일밤, 에이피) 파리 확대 회담 회담제32회본회의가 28일 열렸는데, 4상방이 다 비에르넨전쟁계속의 책임을 상대방에 밀고, 아무 진전을보지못하였다. 맞지미수석대표는 "미국은 남비에트남에있서서의 비52폭격기의 공격을 위시하여 전후규모의 축소인 진전을보고있다. 그러나 북비에트남이 이에 대응하지안키때문에, 닉슨대통령은 추가침벌의 실행을 건기한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이에대해서 스안.도이 북비에트남수석대표는 회담후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비에트남으로부터 무조건 철퇴를 하지안는한, 전쟁을 길게 끌고있다는 책임을 면할수없다" 라고 말하였다.

중공의 핵병기 시설에 소련이 공격계획? 시속 공산당측으로부터의 정보

(워싱톤 8월28일밤, 에이피) 워싱톤에 도착한 정보에의하면, 소련은 중공의 핵병기시설에대한 무력공격의 가능성에대해서, 각국의 공산당에 라진중이라고한다. 이정보는 6월의 세계공산당 회의이후에 서속의 공산당측으로부터 나온말인데, 이것은 반소본자의 계산에의한 피랑이나 고의적인 오보로보는속도있다. 미국부성의 마루스키 대변인은 27일, "이정보에대해서는 알고있는데 미국은 소련이 중공을 핵병기로 공격하거나, 양국간에 전면전쟁이 생키거나한다고는 생각지안고 있다. 또 미국은 전쟁이 발생하지안도록 이망하고있다" 라고 말하였다.

라이 철회 미군병력은 천5백명정도

(뵁북 8월27일밤, 에이피) 라이 방문중의 퍼시공화당상원의원은 다녔으.모멘 라이외상, 미대사 관, 미군측과 회담한후 "라이 주류미군의 철퇴병력은 전체의 1만정도의 천5백명일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신외할만한국에의하면, 비에트남전쟁이 계속, 라오스에의 공산주의자의 진출이 있는한, 라이주류미군 3만6천명의 철퇴는 생각할수없고, 또 미군사모단 철퇴의 철퇴는 가능성이 적다고하고있다.

북비에트남군의 남쪽 침투 감퇴

(워싱톤 8월27일밤, 에이피) 국무성 마루스키 정보관은 27일, "남비에트남의 북비에트남군: 침투는 훨씬 감소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이감소율은 북비에트남군의 사상율을 초과하고있기 때문에, 남비에트남내의 동군병력은 적어지는 경향에있다. 적병력의 감소는 닉슨대통령이 신규 침벌계획을 결정한것에 일요소가된다. 단속에의하면, 피겨 평균 월간 8천으로부터 1만이었은 북비에트남군의 침투병력은 4, 5개월때 그의 반에 줄고있다고보고있다.

사이곤정부의 환수상 드디어 사임

(사이곤 8월22일 밤 공동) 남비에트남의 추대통령은 22일 밤, 찬.반.환수상이 동일 사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사임발표는, 사이곤 정부의 내각개조를 시사고, 약5주간의 공작이 계속된 후에 있었다. 차기 수상에는 찬.찬.김 부수상이 유력시 되고있다. 환수상의 사임을 제기로, 사이곤 정부내부의 정치 위기가 급속히 깊어가고있는 가능성이있다. 사이곤의 미대사관은 추대통령에 대해서 환수상을 사임시키지안도록 강력히 주장하여왔다. 김부수상은 장관이며, 만일 그가 수상 직에 올른다면, 신내각은 "군사정권" 적인 성격을 갖게된다.

체코스로바키아의 반소 시위로 조영사망

(프라그 8월22일 밤, 공동) 체코스로바키아 공산당감부회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프루우에서 21일 경관대, 군대와 소련.동구 5개국군의 체코스로바키아 침입에 항의하는 시위대와외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3명이 사망, 15명이 부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 동성명예의하면, 프루우에서는 반소, 반혁명세력예외한 긴장상태가 일어나고있다고한다. 체코스로바키아에서는 19일부터 시작된 시위 소동중에 20일, 프라에서 2명 사망한것이 발표되고있으며, 이것으로 5명이 사망한것으로된다.

닉슨대통령 암살음모 혐의 ?

(워싱톤 8월 21일 밤, 에이미) 미국정부는 21일, 류바정 부국련대표부 라사오.보네오 3등서기관 (25세)에대해서, "미대통령의 직권의 안전에 관한 사명"을위해 모류바 피난민을 사용한 죄도, 집시 극의회거를 용고하였다. 또 동대표부의 단 직원2명도 미군기지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등의 이유로, 1명은 재입국금지의 용고를, 또 1명은 공직이외의 활동을 정지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미국부성대변인은 "이것은 닉슨대통령의 암살계위를 의미하는것인가" 라는 질문에대해서 "계위의 내용은 공포할수있다" 라고 말하였다.

예산 30억불, 병력 10만명 삭감 미군사력 전면적 추소를 국방장관이 발언

(워싱톤 8월21일 밤, 에이피) 레아드미 국방장관은 21일, 워싱톤에서 기자회견을열고, "미군병력 10만명의 삭감을 위시하여, 국방총성예산을 15억불 삭감한다" 라고 발표하였다. 동장관은 "이 삭감조치가 미군의 용진능력에 될수있는데도 영향을 끼치지안도록, 만전을 기할 자정이다" 라고 말하는한편, "나는 모든 미국민에, 세계에잇서서 미군의 군사태세가 약체화되지안호는 잇슬수 업다는것을 알리고싶다" 라고 경고하였다. 레아드장관의 발언의 주요점은 다음과같다.

1. 국방총성은 신예산년도에들어가기전에 이미 11억불의 예산축소를 실시하고있다. 신규삭감의 15억불 기라를 포함해서 70년도미군사예산은 의외예산의 7480억불보다 30억불 축소되게된다.
1. 병력 10만명 과동시에, 민간직원 5만명이상을 삭감한다. 병력삭감은 금주의 비에트남철퇴 계획과는별도로 거행된다. 기지에서 폐쇄를 점오중의 곳도잇는데, 일일이 의회와같이 처리하여 갈 방침이다.
1. 육군은 동남아세아이외의 지역에잇서서서 군사활동, 병력유지, 훈련을 축소, 약5억불 예산을 삭감한다.

의사주석

시내 린병원에서 입원가료중이시든 전진택씨와 서락서씨는 그만큼 한문 차도를보아, 전진택씨는 한인양도원으로, 서락서씨는 자택으로 각각 퇴원되원하셨다고한다.

